

組_조織_직局_국 評_평價_價書_서

쓴 사람 : 나? 솔래 *^^*

보는 사람 : 모든 選本人

1. 엮음말에서 한 일을 간략하게 추리면

연세 각지에 우리 편을 들어줄 조직책들을 세우고 선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유리한 전략을 짜고, 각종 선전물과 자료집을 뿌리도록 했다. 우선 선거 시작 2주전부터 각 단대별로 조직책들을 세웠는데, 조직책을 세우는 것은 선거 기간 중에도 계속되었다. 그 조직책들에게 부탁해서 각 단대별 수업 실사와 분위기 파악 등을 했고, 조직책 중에는 세미나를 함께 한 사람도 있었다. 선거 시작한 이후에는 연서 받기, 리플렛, 자료집 배포가 조직책을 통해서 되었으며 계속해서 만나가면서 선거 분위기 파악, 선전물 배포상황 파악도 했다. 이것은 선본과 떨어질 수 없는 문제로, 조직책들이 모니터를 잘 해 줄수록 선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지가 잘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직책이 중요한 건, 선거운동원들이 다 커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선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우리의 선전물을 뿌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 간단한 평가와 반성

모든 선본인들이 귀를 종긋 세우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지냈던 선거기간이라 조직책이 따로 필요할지조차 의문이 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했고, 이겼다. -.-;;

우선 엮음말 할 사람들이 모여서 할 일들을 알고, 각처에 조직책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조직력 절대 없는 여성주의자들로서는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역시 -.-;;) 그리고 각종 선전물과 자료집 배포도 제때제때 되었으며 모니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선거 분위기가 안 뚫다는 올해의 상황과 겹쳐, 과연 엮음말에서 그렇게 한 일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이다.

조직책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없었으며 우리의 이야기를 얼마나 소화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운동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안타까운 일이었다. 단지 아는 사람에게 때문에 표를 찍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승부하고 싶다면 조직책들 하나하나도 우리의 정책에 공감하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직책을 어떤 사람을 해야 할 지 알 수 없어서 대충 아는 사람들을 다 조직책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도 문제였다. 이런 실수들은 내년엔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직책들과 관련한 후속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상의 문제와도 함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우리의 편이 되어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므로 앞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